광주일보·조선대병원 공동기획

암 아는만큼 이긴다

〈1〉 악성림프종

목·겨드랑이 붓고 체중 줄면 의심

암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이다. 특히 암은 고령인구 뿐만 아니라 젊은 층에서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암환자들은 병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병원을 찾기 때문에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이에 광주일보와 조선대병원은 지역민들이 암을 조기에 진단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연중 기획시리즈 '암 아는만큼 이긴다'를 연재한다.

통증 없어…나이·종양 수 등으로 예후 예측

고위험군·재발땐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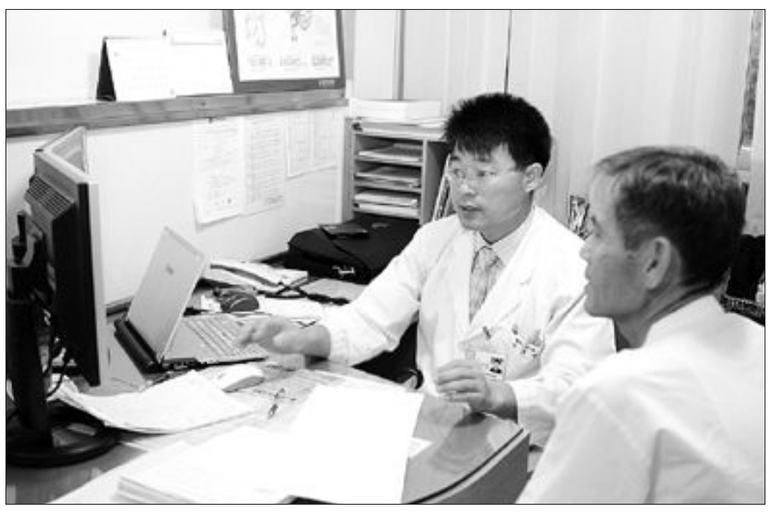
◇악성림프종이란? = 악성림프종은 면역기능을 담당하는 림프조직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서 원칙적으로는 림프조직에서 발생하지만 림프조직 외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전체 암의 약 5% 정도를 차지한다. 악성림프종은 크게 호지킨병과 비호지킨병으로 나눌 수 있고, 국내에서는 주로 비호지킨병이 많다. 여기에서는 비호지킨병에 대해 다룬다.

비호지킨 림프종은 B세포와 T세포, NK세포에서 발생하며 병리소견, 임상양상이 다른 여러 종류의 림프종을 포함하는 질환군이다. 임상경과에 따라 저등급, 중등급, 고등급 림프종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 저등급인 경우 대개 진행도 느리고 생존기간이 긴 반면 고등급으로 갈수록 발병 후 신속하게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급속히 진행되어 예후가 나쁘다.

◇증상 = 비호지킨병의 가장 흔한 증상은 림프절종대로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림프절은 혈관과 같이 온몸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목, 겨드랑이, 복부, 사타구니 등 전신에서 림프절종대가 관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림프절외 림프종의 경우 편도, 비인두, 위장관등을 침범할 수 있다.

전신증상으로 발열(특별한 원인이 없이 열이 지속), 발한(수면시 옷이 흠뻑 젖을 정도의 야간 발한), 체중감소(진단 6개월 전 동안 이유없이 10% 이상 체중감소)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B증상이라고 부른다. 그 외에도 빈혈, 범혈구 감소증과 같은 혈액학적이상이 동반될 수도 있다.

◇진단과 치료 = 비호지킨 림프종의 진단은 림프절 생검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진행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흉부 및 복부 컴퓨터단층촬영과 골수조직검사를 시행한다.



박치영 교수가 악성림프종 환자에게 진단 결과와 향후 치료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근에는 PET-CT도 진단 및 치료 후 반응평가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림프조직 침범 부위의 수, 침범부위와 횡격막과의 관계, B증상의 유무 그리고 림프절 외 침범의 유무에 기준해 병기가 정해진다. 이를 안 아버 병기분류체계라고 한다. 병기와 함께 나이, LDH, 림프절 외 종양 수, 전신활력 상태 등이 예후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인자들로 이를 점수로 환산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생존기간, 치료반응율 등을 예측할 수가 있다.

치료는 악성도와 병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다른 악성종양과 달리 병기가 낮아도 수술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복합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치료를 병합하는 방법과 고위험군이거나 재발한 악성림프종에서는 자가조혈모세포이식으로 완치율을 높일 수 있다. 다른 종양에서처럼 악성림프종에도 표적치료제가 사용되면서 치료성적이 향상됐다. 〈박치영 조선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정리 =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치과산업체 육성 및 성과 보고회

조선대 치과용 정밀장비·부품 기술혁신센터

조선대 치과용 정밀장비 및 부품 기술혁신센터(단장 강동완 교수)주최로 '광주 치과산업체 육성 및 성과 보고회'가 최근 광주시청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사진〉

이날 보고회에서는 조선대 정상화 교수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임플란트 수술용 로봇장비에 대한 발표를 했으며, 조선대 김근형 교수가 바이오메디컬(biomedical)용 3차원 스카폴드(scaffold) 제조 장비기술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후 치과용 고주파 주조기를 국내 최초로 제품화한 한형렬 (주) E.P.D 대표, 수출주도형 임플란트 사업화를 구축한 윤길제 (주) 다스테크 대표 등 3개 업체의 치과관련 산업체 사업 보고가 이어졌다.

치과용 정밀장비 및 부품기술혁신센터는 이후 이러한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조선대 치과대학 등과 함께 국제적인 네트워크 구축 및 생산 제품의 마케팅에 나설 방침이다.

센터는 지난 2004년 교육인적자원부 누리 사업으로, '첨단 치의공인력 사업단'을 지정돼 총 40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으며, 지난 2006년 지식경제부 지역혁신센터(RIC)사업인 '치과용 정밀장비 및 부품 지역혁신센터'를 유치해 오는 2016년까지 지역 내 첨단 치과의료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5년 간 센터의 산업체 지원에 힘입어 지역 내 치과의료 산업체가 지난 2004년 4곳에 불과했으나 2009년 26곳으로 늘었으며, 매출도 251억6천만원으로 증가했다. /채희종기자 chae@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

지중해빈혈 등 21종 추가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는 새해부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지중해빈혈과 단일심실 등 21종의 질환을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은 최저생계비와 최고재산액이 300% 미만인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사업의 대상 질환에 올해 1월부터 지중해빈혈(D56), 단일심실, 크라베병, 니만 피크병, 아이젠멩거증후군 등 21종 93개 질환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로써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은 132종으로 늘어난다. 의료비 지원을 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모두 2만8천900명으로 5천여명의 환자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지원사업 대상 질환은 보건소나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희귀난치성질환헬프라인(http : //helpline.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카레 노란색 내는 성분 '커큐민'

C형 간염바이러스 억제 효과

카레에 노란색을 띠게 하는 성분인 '커큐민(Curcumin)'이 C형 간염바이러스(HCV)의 복제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큐민이 간암과 위암, 전립선암 등에 항암효과를 낸다는 연구결과는 잘 알려져 있었지만, C형 간염바이러스에 대한 억제효과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일 부산대 분자생물학과 정재훈 교수팀에 따르면 커큐민 성분이 체내 'SREBP-1'이라는 단백질의 활성을 감소시켜 C형 간염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RNA바이러스 중 하나인 C형 간염바이러스는 서구와 일본에서 B형 간염바이러스보다 높은 빈도로 간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질환은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간염과 간경화, 간암에 이르는 간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

라식 수술 못하는 고도근시 렌즈삽입술로 시력교정

수정체와 홍채 사이에 렌즈 시술

각막 손상·부작용 없이 시력회복

라식을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안경이나 렌즈에 의존해야 할까?

이런 사람들에게도 해결책은 있다. 바로 안내렌즈삽입술(ICL).

시력교정술에는 크게 엑시머레이저를 이용한 라식, 라섹수술과 ICL과 알티산 등의 렌즈를 이용한 안내렌즈삽입술이 있다. 안내렌즈삽입술은 눈에 안경을 착용하듯 눈에 아무런 손상을 일으키지 않고 부작용의 걱정 없이 시력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안내렌즈삽입술은 안구 안쪽 홍채 뒤에 렌즈를 삽입해 영구적으로 시력을 교정하는 고도의 시술로 라식이나 라섹과 달리 각막을 절삭하는 과정이 없이 최소한의 절개를 통해서 홍채와 수정체 사이의 공간에 렌즈를 삽입하는 수술이다.

눈의 손상은 거의 없이 시력회복을 가져와 지금까지 알려진 시력교정술 가운데 가장 우수한 치료법이다.

특히 고도근시 환자의 경우 교정을 위해 많은 양의 각막을 절삭할 필요가 없어 각막 절편의 이탈이나 각막 돌출증 같은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없다. 또한 야간 빛번짐 현상이나 근거리 조절 능력의 상실이 없어 안정적인 시력 유지가 가능하다.

라식 수술의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불편함을 참고 견디기보다는 안과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수술법을 선택한다면 부작용 걱정 없이 밝은 세상을 볼 수 있다.

이같이 개개인의 눈 상태나 환경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적합한 시력교정술을 선택해야 만족도 높고 안전하고 선명한 시력교정술을 받을 수 있다.

ICL은 안내렌즈삽입술(Implantable Contact Lens)의 약자로 시력교정을 하기 위해 눈 속의 수정체와 홍채 사이에 삽입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고안된 렌즈. 'COLLAMER'라는 재질로 이미 17년전부터 안내수술에 사용되어 왔으며 인체에 가장 친화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도움말 = 윤길중 밝은안과21 대표원장〉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